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3. 2. 19 ~ 2023. 3. 11 제278호

핍박받는 성도에게 편지 쓰기 ... 수감자들에게 큰 위로

해당 정부, 세계의 주목으로 수감 성도 처형 쉽지 않아

전 세계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믿음으로 인해 중국과 에리트레아, 이란, 러시아, 북한에 수감돼 있는 13명의 성도들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자고 기독교인들에게 촉구했다. 한국 VOM은 올해 안에 이들 기독교인 수감자 한 명당 최소 100통의 편지를 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최근 밝혔다. 현숙 폴리 한국VOM 대표는 “핍박받는 형제자매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우리의 지체”라며 “다른 지체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는 편지를 쓰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형제자매들은 지금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혀 고통 받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VOM은 웹사이트(vomkorea.com)에 ‘수감자에게 편지 쓰기’ 캠페인 페이지를 개설, 개별 수감자에 관한 개요를 비롯해 편지 쓰기 지침, 수감자의 모국어로 된 편지 내용과 성경 구절 다운로드, 수감자 주소 등을 게시해 놓고 있다. 이 수감자들 가운데는 중국의 왕이(王怡) 목사, 와 존 차오(John Cao) 목사,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알려진 에리트레아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 자신의 교회를 철거하는 경찰에게 반발했다는 혐의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러시아인 형제, 중국의 장백 지역을 방문한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북한에서 복역 중인 조선족 장문석 집사가 포함돼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 수감자들에게는 전 세계 곳곳에서 보내준 편지가 가장 큰 힘이 된다면 “나라 밖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나라의 정부가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대로 기독교인을 처형하거나 형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정지순 권사(부천순복음교회)

“제2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에 집중하고 싶어요”

1970~80년대 한국교회 그는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 전도에 불타올랐다. 그 한 복판에서 정지순 권사는 당시 순복음교회 구역장의 상징인 빨간 가방을 들

고 자신이 맡은 구역의 영혼들을 열정적으로 섬겼다. 눈만 뜨면 복음을 전하고, 새벽마다 기도의 불을 지폈다. 세월이 흘렀다. 정 권사의 기도의 불은 선

교 사역으로 이어졌다. 지금 열방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남은 인생을 선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정 권사를 만났다. • 4면에 계속



▲ 믿음으로 인해 수감돼 있는 성도들. 제공: 한국순교자의소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62)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누가복음 12:29-31)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차이는 바로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죄인으로 태어나 마치 부모 없는 고아 처럼 하나님 없이 저 혼자 살아야 하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 병든 자가 추구하는 욕심을 따라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거지와 이미 모든 것이 다 허락된 왕자는 구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왜일까요? 세상도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없다면 복음의 가치가 그에게 실체가 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시며,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주받은 자들의 두



일러스트=김경선

려움에서 벗어난 기도 제목인데, 고아도 버림받은 자식도 떠돌이도 아닌 너희가 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안 주

실까요? 몸을 지으신 이가 옷을 안 주실까요? “공중 나는 새도 먹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영혼의 독립 만세를 외치다



▲ 광주 양림동 수피아여자고등학교 내 광주3·1만세운동 기념 동상. © 복음기도신문

광주 양림동 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 들어서 언덕을 따라가다 보면 광주3·1만세운동 기념 동상이 있다. 1919년 3월 10일 당시 전교생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의 물결에 휩쓸려 태극기 행렬이 광주 전역을 덮었다. 교내 수피아 홀 지하에서 비밀리에 만들어진 태극기는 만세운동의 불이 되었다.

대한민국 근대 역사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조국을 사랑했다. 이들은 빼앗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웃과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사탄에게 빼앗긴 이웃을 위해, 영혼의 광복(光復), 잃었던 생명의 빛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친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 이들은 오늘

도 주님이 부르신 땅끝에서 삶의 '영혼 독립 만세'를 외치며 한 알의 밀이 되어 그 땅의 양분으로 생명을 드리고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GNPNEWS]

헤브론원형학교, 20대 청년 선교사 지난 10년간 100명 배출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헤브론원형학교가 20대 초반의 청년 선교사들을 매년 10여명 이상 배출, 지난 10년 가까이 약 100명의 선교사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2013년 개교한 헤브론원형학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2년간의 단기 선교훈련 과정을 마친 용감한 정예병 수료식을 1월 27일 서산 본교에서 갖고 이날 12명의 청년 선교사를 다양한 현장으로 파송했다. 지난 2년간 한국WEC국제선교회, 한국오엠, 순회선교단 등의 선교단체와 협력, 전 세계 각국으로 다음세대 선교사들을 파송한 이 학교는 이날 수료식에서 2년간의 선교 보고를 가졌다.

이에 앞서 이 학교는 이들 선교단체와 협력, 한 지역에 두세 명의 학생을 팀으로 파송해 이들 나이에 걸맞는 다양한 훈련과 사역을 통해 장기 선교사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배우도록 해왔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용감한 정예병이란 이름으로 캠퍼스 선교, 교회개척, 다음세대 교육, 노방전

도, 버스킹, 순회선교 등 다양한 지역현장에서 장기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쌓았다. 이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장기 선교사로 사역하거나, 군대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담당하고, 부르심에 따라 국내외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헤브론원형학교 이사장인 김용의 선교사는 "이번에 수료하는 용감한 정예병들의 선교보고를 들으며 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들은 진리를 결론으로 삼아 순종해온 시간임을 알게 됐다."며 "순종을 나의 원함에 따라 취사선택하지 않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이 학교의 인재상인 순종의 전문가의 모습으로 열방을 섬길 의지한 선교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 한국 WEC국제선교회 부대표 장연식 선교사는 "이 젊은 날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청년 선교사들이 참 복되다."고 축사했다.

한편,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선교사로 자원한 다



▲ 지난 1월 27일 진행된 용감한 정예병 수료식. 제공: 헤브론원형학교

음세대 110여 명이 재학 중인 이 학교는 성경을 교과서로 채택, 총체적 복음과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등을 교육하며, 그 외에도 세계관, 수학, 사회, 역사, 체육 등 10대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 기초지식과 선교사가 갖춰야 할 소양교육을 하고 있다. 이 학교는 매년 하반기에 신입생을 선발, 첫 학기에 복음과정 중심적으로 하는 집중영성 훈련과정과 선교집중훈련학교 등으로 구분된 교과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40여 명 수감... "나라 전체가 감옥"

에리트레아에서 44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돼 감옥에 수감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최근 보도했다. 에리트레아 감옥에 있는 기독교인은 현재 총 4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사막의 컨테이너나 지하감옥은 물론 가시밭길을 달리게 하는 등의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사막의 컨테이너에서 불같은 더위와 밤의 추위 가운데 보호해주시고, 가시밭길을 달리는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채워주셔서 감옥과 같은 에리트레아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여 그 날을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핀란드,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 '선언'만 하면 법적 인정

핀란드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만 하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2일 외신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스페인에서도 16세 이상은 의료진 감독 없이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탄의 종이 되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서로의 죄를 옳다고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셔서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켜주십시오.

韓 12세 관람 예능프로그램, 동성애 넘어 양성애까지

8명의 남녀가 혼숙하며 데이트를 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동성애를 넘어 양성애 상황까지 연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5일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12세 이상 관람가로 초등학교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성 가치관에 큰 혼란을 끼칠 우려를 낳았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다음세대를 지켜주십시오. 거룩하고 성결한 진리로 더럽고 추한 세상 문화를 파하여 주시고, 그 한가운데에 소금과 같이 던져져 그 물을 맑게 고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2월 20일 ~ 2023년 3월 11일

- 2월 20일 ~ 2월 25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2.20-25(06-24시) ▶경기 광주 / 문광교회(최**)010-3380-5781, 2.22-24(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2.23(18시)-25(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2.24(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2.24-25(05-17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2.25(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그 외 11교회 진행중.

- 2월 27일 ~ 3월 4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2.27-3.1(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야산병원(이**)010-5248-4147, 2.27-3.3(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2.28(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3.1(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3.3(12시)-4(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8교회 진행중.

- 3월 6일 ~ 3월 11일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문**)010-6687-9266, 3.6(05-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3.6-8(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3.6-11(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선교회(권**)010-7754-1726, 3.8,10(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3.9(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3.10(14-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9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ISIS

ISIS 사태, 이슬람 종파 전쟁에서 정치 전쟁으로

아랍어 '타아슬름'

최근 아랍 세계에서 새로 등장한 신조어로, '타아슬름(ta'aslum)'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슬람'이 아니면서 '이슬람'이라고 칭하는 것을 말한다. '타아슬름'의 능동 분사형 '무타아슬림'은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위선자이며, 이슬람이 명령하는 것을 어긴 자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하루 다섯 번 기도하면서 도둑질하는 무슬림이다. 그러므로 이 '타아슬름'과 '무타아슬림'이라는 말은 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조직원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에게 붙여질 수 있는 말이다.

'ISIS' 사태의 시작

최근까지 중동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갔던 'ISIS(아 이시스로 읽는다)' 사태를 간단히 보면, 강성 '수니' 원리주의 무슬림들에 의한 무자비한 '카피르(비 무슬림)' 처형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4년 6월 어느 날 자기들을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라고 밝히면서 알려진 이라크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정도로 인식될 수도 있다. 쉽게 제압될 것으로 여겨졌던 이들은 당시 이라크의 제2의 도시인 '모술'을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티크리트'와 '바이지' 등 이라크 북부의 주요 도시를 점령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라는 이름에서 '이슬람국가(IS)'로 자기들의 명칭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2019년 사망)'를 자기들의 '칼리프'로 선언하기도 했다. 그때서야 전 세계는 중동의 'ISIS' 사태가

가 복잡적으로 뒤얽힌 금세기 최대 사건으로 확대됐다. 중동과 서구의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였다.

종교적 관점으로 본 'ISIS'

'ISIS' 사태를 보는 종교적 관점은 이슬람 '수니' 보수 무슬림들에 의한 '카피르' 개념과 연결해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적이다. 이들은 '칼리프' 제도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칼리프'로 소개하며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무슬림 공동체, 칼리프 국가의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칼리프' 선언이 있었다고 해서 전 이슬람 세계에 의해 이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저들의 숨은 의도는 바로 자기들이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들로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만방에 알리면서 최소한 전 세계 '수니' 무슬림의 동조와 인정을 받으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였다.

둘째, 이들이 내세우는 '검은색'의 상징적 의미이다. 이들의 검은 깃발, 검은 복장은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당시 메카를 정복(AD 630)했을 때 이와 비슷한 검은 터번을 두르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아마도 이에 대한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보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셋째, 국제 이슬람 '지하드' 운동 경향이다. 이들은 국지적인 다른 이슬람 '지하드' 단체들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용병을 모으는 등 국제적 운동 성향을 보였다. 이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으로 압박 주기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ISIS'는 특정 국가의 지역을 아예 광범위하게 점령하면서 결국 그 지역에 이슬람교를 표방하는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비쳤다.

다섯째, '두려움'과 '공포'라는 심리전 전략의 사용이다. 이슬람 무장 단체 대부분은 '신'의 이름으로 '지하드'의 명분을 가지고 정적들을 처단하는 모습 속에서 'ISIS'도 그 예외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참수' 같은 공개 처형 방식과 총을 가지고 수많은 '카피르'들을 무자비하고 처참하게 살해하는 모습들을 일부러 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들의 잔인한 공포의 처형방식을 통해 서방세계의 중동 진입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이런 '공포'라는 그들의 전략으로 서방세계를 자극하여 보복과 응징의 이유로 자기들의 전쟁에 합류시키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교의(敎義)를 스스로 어기는 모순적인 행위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이슬람의 정당한 처벌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참수'에 대한 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참고로 '참수'라는 형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언제나 대역 죄인에 한정된 극단적 형벌이었다. 구란에 따르면, '참수' 처형은 전쟁 중에 '알라'를 거부하는 자 즉, '카피르'들에 한해서만 허용된 법이다. 그러므로 이슬람교 안에서도 이 '참수' 개념이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슬람 신학자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ISIS'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참수' 희생자들 대부분이 꾸

정치적 관점으로 본 'ISIS'

'ISIS' 사태를 이해하는 정치적 관점은 종교적 관점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2003년 미국의 공격으로 이라크 내에서의 '수니' 무슬림들의 몰락을 최근 'ISIS' 사태와 연결 지을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중동 '수니' 무슬림들의 맹주를 자처해 오던 이라크에서는 소수의 '수니' 무슬림들에서 다수의 '시아' 무슬림들로의 정권교체가 진행되었다. 이

던 소위 '아랍의 봄' 혹은 '재스민 혁명'은 전 중동에 뜨거운 민주화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나 전 중동이 이런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정권들이 하나씩 쓰러지고 있을 때 특이하게도 중동 '레반트' 지역의 '시리아'에서는 유일하게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제동이 걸려 결국 오늘날까지 끝날 조짐 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여기에서 중동의 많은 국가가 당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커다란 정체성의 변화를 맞이하였음에도 시리아에서 민주화 운동이 실패한 원인을 살펴본다는 것은 당시의 중동 정세 이해를 위해 필



▲ 지난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 출처: baks.bund.de 캡처

요한 일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아랍 민주화 운동의 성공에는 정부군이 시민군에 합세한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시리아에서는 반대로 잘 훈련되고 충성스러운 정부군의 강한 방어벽에 오합지졸의 시리아 시민군이 상대가 되지 못했다. 둘째, 이슬람 '수니'와 '시아' 종파의 갈등 구조가 당시 시리아 상황에서 역력하게 드러났다. 즉, '수니' 무슬림들로 이루어진 시리아 시민군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군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아' 국가도 상대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레반트' 지역에 형성된 '시아' 국가(시리아, 이란, 이후의 이라크)의 합동 방어막을 뚫을 수 없었다는 것이 장기전 돌입의 핵심적 이유로 봐야 한다. 셋째, 시리아를 위한 당시 러시아의 적극적 개입이 그 마지막 이유이다. 당시까지 시리아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중동 거점지역이어서 수많은 러시아의 무기가 판매된 국가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시리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실질적 힘으로 작용해 왔다. 그로 인해서 러시아로서는 '수니' 무슬림들로 이루어진 시리아 시민군과 다른 '수니' 국가 그리고, 서방의 합동 공격으로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 방관할 수 없었다.



▲ ISIS에 의해 파괴된 교회(좌)와 이라크 카라코시에서 파괴된 집을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인. 출처: ACN 캡처

단순히 무명의 한 테러 집단에 의해 발생한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중동 역사와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중동에서 시작된 'ISIS' 사태는 수많은 중동의 해묵은 문제

그들의 입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 굳히기 전략 정도로 볼 수 있다.

넷째, 영토 확보의 강한 의지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다른 테러 단체들은 주로 지하비밀조직으로서 단발적 테러 공격으로 심리적

란 구절처럼 전쟁 중에 '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슬람법과 전통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슬람법을 따르지 않는 오류와 모순을 범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제 이라크 땅에는 1979년부터 24년간을 집권했던 '수니' 무슬림들이 서야 할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치적 보복의 두려움으로 그 땅에 남아 있던 소수의 '수니' 무슬림들은 모두 그 땅을 떠나야만 했는데 바로 이들이 후에 'ISIS' 세력에 합류한다. 그러므로 미국에 의해 '사담' 정권이 해체되지 않았더라면 'ISIS' 출현은 없었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둘째로, 2010년경부터 중동에서 시작된 아랍 민주화 항쟁으로 당시 중동 국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념이 없을 때 어부지리로 'ISIS'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2010년에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시작되었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지순 권사 (부천순복음교회)

• 1면에 이어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 교회, 집, 선교만 알고 살았어요. 1983년에 남편과 결혼하고 교회를 39년간 섬겼어요. 결혼하고 초창기에는 빨간 가방 들고 구역장으로, 93년부터는 해외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아프리카, 멕시코, 남아공 등을 다니며 선교 사역으로 30년을 섬겼어요.”

결혼 초기 심방 전도하며 구령의 기쁨 누리

‘빨간 가방=전도’로 상징되던 시절 정 권사는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며 영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았다. 정 권사의 섬김은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해외에서 집회가 열릴 때면 한국 무용을 배워서 무용과 국악 연주 등으로 섬기기도 했다. 그렇게 구역식구들을 돌보고, 눈만 뜨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만 살다가 신앙생활에 일대 전환점을 만나게 됐다.

“2018년도에 순회선교단에서 하는 복음학교와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께 올인해서 산다고 했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죄 된 내면의 실체를 보게 되니, 복음이 제게 이뤄주신 생명의 변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제 삶에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5박 6일간 진행되는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는 복음에 관한 기초 개념부터 십자가의 도, 복음과 성령, 복음과 선교와 헌신 등 복음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특별한 신앙 훈련 과정이다. 정 권사는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됐다고 고백했다.

“지금까지 전도도 선교도 모두 내가 중심이 되어 섬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

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새로운 삶이 펼쳐졌어요. 또 코로나 기간이 힘들었다고들 하지만, 제게는 온라인으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훈련을 마치고 방에서 나오면 남편 장로님이 제 얼굴이 천사같다고 할 정도였어요.”

- 선교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선교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30년 가까이 선교지를 섬겨오다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케냐, 에티오피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섬기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필요한 곳에 교회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둘이

30년 가까이 선교지 섬기며 순종

- 선교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2002년도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다가 허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8명이 타고 가던 차가 뒤집히면서 척추에 금이 갔어요. 당시에는 뼈에 금이 간 줄 몰랐고, 또 선교지 가서 다쳤다고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혼자 감당하기로 하고 다쳤다는 말을 안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운이 너무 좋았다고 말하더군요. 이 정도면 허리를 못쓴다고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 치료해줬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주님이 완벽하게 치료해주셨어요.”

-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척추에 금이 갔으니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했겠네요.

“3년 정도 허리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선교지를 섬겼어요. 한번은



▲ 에티오피아 엘렌스교회 어린이들과 함께(좌), 선교지에서 북 공연을 하고 있는 정지순 권사. 제공: 정지순 권사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세우자는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교회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서 전임으로 사역하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일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온두라스 성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보통 병원 치료를 받고 오면 일주일 동안은 꼼짝도 못할 때였어요. 허리를 묶고 쿠션에 기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냐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받을 먼저 내디뎠다고 대답했더니, 믿음으로 받을 내딛듯 선교지에 가라는



제공: 정지순 권사

“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날마다
영혼 구원을
생각했어요
”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픈 허리를 묶고, 복과 장구를 가지고 갔어요.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갔는데, 섬기는 동안에는 통증도 못느꼈어요. 이후 치료는 계속 했지만, 지금도 돌아보면

필요한 것들을 물어봤더니 리스트를 보내왔어요. 1박 2일 동안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갔어요. 먼저는 케냐 신학교에서 현지인들과 밥을 해 먹으면서 교체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전에 선교지를 가면 비위가 약해서 현지 음식을 많이 못 먹었어요. 건빵 하나만 입에 넣고 노방전도 다니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들과 같이 먹고 싶어서 뿌연 아프리카 물에 커피도 타서 마시고, 수프도 끓여서 나눠 먹고 교제도 했어요.”

-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는 선교를 하셨군요.
“이게 진정 주님의 사랑인데, 그동안 힘들다고, 비위 안 맞는다고 못 먹었던 게 부끄러웠어요. 선교는 거기 들어가서 같이 눕고, 자고, 먹고, 함께 하는 것이더군요. 에티오피아 교회도 방문했어요. 현지에서 구입한 재료로 요리를 해서 나누고, 1박 2일 동안 성경학교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



제공: 정지순 권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어려움들을 돌파해나가셨군요. 지금은 어떻게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교회와 선교를 위해 저희의 전부를 드려서 순종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교단체의 선교와 기도 훈련과정에 참여하면서 지난 30년을 돌아보게 됐어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겼던 게 맞을까 생각하게 됐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과 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선교지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큰 무리로, 대대적 행사로 그곳을 방문했다면, 이제는 영혼들과 친밀하게 같이 지내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나눴더니 그렇게 하자더군요. 에티오피아에 전파해서

것 나누고 왔어요. 저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한 건 남편과 제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허락해주신 것을 온전히 나누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금 삶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리를 털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자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죠. 선교지 중, 특히 에티오피아는 영혼들이 500~600명씩 모여요. 교수를 은퇴하신 분들이 팀을 이뤄 성경학교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3개월만 시간을 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더군요. 그래서 사업장도 하나씩 정리하고 더욱 선교에 집중하려고 해요.”

-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에 전력하시는 거군요.

“선교지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지난해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어린 생명들이 말



▲ 건축 중인 에티오피아 엘렌스교회. 제공: 정지순 권사

• 5면에 계속



선교 통신

가나 카라가에 추장이 2명 돼... 유혈사태 위기

저희 가정이 삶의 터전으로 삼은 카라가 지역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나는 입헌제로 4년 중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나라입니다.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전통적인 추장 섭정과 정부의 통제를 동시에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부족국가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지금도 마을 단위로 추장이 존재하며, 이 추장의 권한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장은 마을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추장의 허락 없이는 땅 매매가 제한적입니다.

수년 전 우리가 머무는 땅을 다

스리던 대추장의 죽음 이후, 그의 셋째 아들이 추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추장은 대부분 대를 이어가는 것이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추장은 2년간 이 지역과 카라가에 속한 30여 개 이상의 마을들을 잘 돌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추대되던 같은 시기에 다곰바족의 대추장(아부두 가문)이 다른 가문의 사람을 추장으로 세워 카라가에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카라가는 마을 전사들로 구성된 팀들이 칼, 산탄총 등으로 무장하고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막고 밤낮 2주일을 버티어 외부인이 추장이 되는 것

을 막았고 이것이 법정 싸움으로 2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곰바족 안에는 크게 세 가문이 존재합니다. 아부두 가문, 안다니 가문, 마하미 가문입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 카라가는 마하미 가문이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카라가와 그 밑에 속한 30여 개 마을들이 마하미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곰바족의 추장과 군대, 경찰 등이 카라가에 중무장을 한 채 진입을 시도하였고 현재 카라가에는 두 명의 추장이 공존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추장에게 3일의 기한을 주며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카라가에 들어왔던 군 병력(600명), 경찰(800명)은 대부분 철수하였고 카라가에 속한 마을들의 주민들이 대거 집결하여 선출된 추장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특성상 소요사태가 벌어지면 대부분 유혈사태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의 경우 시위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는 옆 도시 타말레에서 사태



▲ 가나 카라가 지역의 풍경. 제공: 맹재관 선교사

를 지켜보며 카라가에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장님과 좋은 유대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든든한 우군과 같은 분입니다.

카라가 현지 추장의 말로는, 군과 경찰이 철수하면 누군가 외부에서 온 추장을 살해하고 불질러 버려도 아무도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1992년 다곰바 대추장 문제로 아부두 가문에서 선출된 대추장을 안다니 가문의 사람들이 칼리를 고용해 살해한 후 버스에

매달아 불태운 사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닦친 카라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이 어려움이 유혈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그리고 현 추장님이 계속해서 추장의 지위를 이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GNPNEWS]

가나=맹재관 선교사



▲ 초콜릿을 선물 받고 기뻐하는 추장님과 맹재관 선교사(우측). 제공: 맹재관 선교사

• 4면에 이어

선교 훈련받으며 삶을 나누는 선교 깨달아



▲ 사랑하는 남편 신은식 장로와 함께. 제공: 정지순 권사

숨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저들 속에 심겨졌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소망이 생기더군요. 지금도 기도할 때면, 그들이 생각나요. 그들에게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환경 속에서 사니까요. 허락된 것이라도 나눠 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 두 분의 마음이 일치돼서 인생의 2막을 열어가시는 모습이 도전이 됩니다. 자녀가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남편은 7남매 중 막내예요. 가족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일 하라고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 같다.’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어요. 결혼 후 5년 정도 됐을 때, 아이 때문에 1%라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빼앗긴다면 아이에 대한 미련도 다 버리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사가 43장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영적인 자녀를 주셨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당시 제게 허락해 주신 구역 식구들과 선교지의 영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오직 복음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다 보니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진 않았어요. 남편과 오히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오직 선교를 위해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어려움이 올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불경기라고들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주인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무슨 염려 걱정이 있겠냐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남편 장로님은 제가 보기에 기도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몇 시간 기도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오면 성경 읽고 감사일기를 쓰세요. 지금까지 써 온 게 수십 권일 만큼요. 저도 하루 종일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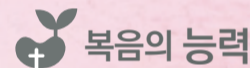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어요. 여름 방학 때 청년들이 시골에 와서 성경학교를 해줬

는데, 성경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잠시라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도록 주님이 저를 인도해주셨어요. 저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나니까 세상의 것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세상에 대해 별로 욕심도 없었죠. 하는 것이라고는 말씀을 써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루하루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 끝으로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남편과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교하면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어요. 내 일이 약속된 인생이 아니니 하루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허락되는 한 이렇게 살다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GNPNEWS]

Y.K.



기도와 물질주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계획들과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고 교회의 활력을 고갈시키는 물질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변화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좁은 길을 버리고, 다른 힘들에 의지하여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치명적인 거짓 교리의 덫에 걸려든 탓에 교회는 세상 것들을 받아들였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미혹되었으며, 교회의 기초는 약화되었고, 교회는 그 아름다움과 힘을 대부분 상실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물질주의적 경향에서 교회를 구해냈다. 그들은 교회 본래의 영적 능력을 회복시켰다. 물질주의라는 모래톱에 걸려 있는 교회를 들어 올려 깊은 영적 바다로 밀어 넣었다. 교회를 더 큰 능력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늘 교회의 방향키를 잡고 계신다.

[GNPNEWS]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E.M.바운즈)’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 (7)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십자가 복음’

“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복음뿐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 6:3~4)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복음뿐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5)
 영이 죽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

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 어다”(롬 6:10~11)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전부로 받아들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단번에 끝장 내신 죽음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라고 하신다. 내 안에 있는 옛 감정과 죄 된 습관을 쫓



일러스트=이예원

아 익숙한 충동에 따라 살던 옛 자아의 습성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처리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인식에 속

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그것과 상관없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신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018년 7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3면에 이어

결국 이슬람 종파 전쟁을 빙자한 현실 추구의 정치 전쟁

그러므로, 당시 시리아 사태는 ‘시아’ 무슬림들을 감싸는 러시아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러시아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수니’ 무슬림들 쪽에 섰던 미국의 충돌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역에서 ‘시아’ 무슬림들 편에 섰던 러시아 견제를 위해 무조건 반대편에 섰던 미국

이 마치 ‘수니’ 무슬림들과 ‘ISIS’를 감싸는 것으로 오해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당시 ‘ISIS’의 잔인성과 공포정치를 극도로 혐오했던 미국의 입지가 난처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셋째로 정치적 관점에서 현대 서방국가를 향한 ‘아랍민

족주의’의 재등장이라는 관점에서 ‘ISIS’ 사태를 바라볼 수 있다. 중동에서 발생한 이슬람 테러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유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서구 열강은 자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원자재’ 구매가 너무 절실했으며, 그 원자재를 수입해 만들어진 상품의 판매 시장이 필요했다.

이런 와중 중동에서 원유가 나오게 되었고, 서구 열강은 위와 같은 은밀한 두 조건의 실현을 위해 세계대전의 승전국 자격을 가지고 오스만제국의 땅이었던 중동을 ‘분할 통치(Divide and Rule)’한다. 이때, 프랑스는 레바논, 시리아와 이라크의 모술 지역을, 영국은 이라크와 요르단 지역을 각각 차지한다. 이것이 바로 1916년 5월에 있었던 영국의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조르주 피코’에 의해 비밀리에 체결된 ‘사이크스 피코 협정(Sykes - Picot Agreement)’이다.



프랑스는 과거부터 맺어온 종교와 무역의 연계 때문에 레바논과 시리아에 남아 있기를 원했으며, 영국은 수에즈 운하와 페르시아만에 있는 그들의 유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때, 영국은 아랍 국가와 맺은 ‘후세인-맥마흔 서신’을 통한 약속을 파기하고 서라도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해, 당시 아랍의 독립은 자연히 유보될 수밖에 없었으며 아랍인들은 또다시 배반의 쓰라린 아픔을 견뎌내야 했다.

결국, 당시 이러한 서구 열강들의 책상 위에 앉아 자로 줄긋기로 나뉘었던 지역이 지금 대부분의 중동 국가라는 것에 아랍 민족주의자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ISIS’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방국가를 향해 아랍 민족주의 감정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면서 중동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꾀하려는 전략을 펼친 집단이었다. ‘ISIS’ 사태는 종교적으로는 과거 역사를 통해 내려온 전형적인 종파 갈등이 중동 지역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서방 국가들을 배경에 두고 세계 평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러나 결국은 또 다른 이름의 같은 자원 전쟁 내지는 또다시 반복되는 열강들의 각축전처럼 보인다.

당시 ‘ISIS’가 자기의 입지를 굳혀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지역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민

심을 얻어나가는 일과 전쟁에서의 자금 라인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일이었다.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로 그 땅에서 ‘ISIS’를 몰아내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결국 ‘ISIS’ 사태는 이슬람 종파 전쟁을 빙자한 현실 추구의 정치 전쟁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19세기 서구 열강의 각축전, 20세기 중동전과 걸프전 등에서 나타난 국제 열강이 보여 준 자국의 이익과 실리 추구의 외교전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GNPNEWS]

김종일 교수(아신대 ACTS 중동연구원 교수)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출처: Rumman Amin on Unsplash



L국 복음캠프 섬김... 훈련생의 믿음의 결단 보며 “감격”

L국에서 열리는 복음캠프에 참여하게 됐다. L국은 몇 년 전, 선교훈련에서 아웃리치를 다녀온 곳이었다. 너무 더웠고 밖에서 일만 했던 기억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한국에서 한 번의 팀 모임을 하고 출국했다. 복음캠프에서 나는 주방을 섬기게 됐다. 주방 섬김에 취약한 나는 ‘주방은 나 아니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주방으로 불러주셨다.

L국의 주방 환경은 열악했다. 파리떼가 어디서 오는지, 늘 우리를 맞이했다. 또 15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려니 잠시도 쉴 수 없었다. 그러나 주방을 섬기면서 순종보다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원하여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는 지체들을 보면서 도전이 되었고 나도 순종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맛보았다. 주방에서 함께 섬기는 지체들도 하나같이 주방 일에 서툴렀다. 또 상황은 힘들



일러스트=고은선

고 열악했다. 그러나 주방 안에서의 힘든 시간이 지나고 있는 동시에 복음을 듣고 있는 현지인들을 보게 됐다. 이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면 그 먼 한국 땅에서, 이 비싼 비행기 값을 드려서, 그것도 주방에 서툰 사람들을 불러서 섬기게 하셨을까 생각하니,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깨닫게 되었다. 주방이 힘든 만큼 이 영혼들이 더 귀해졌다.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그 일을 이루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주님의 피흘리심이, 그분의 희생이 클수록 그만큼 나의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보

게 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물이 되면서 훈련생들을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

2박 3일 짧은 일정에, 그나마 통역으로 강의가 진행돼 훈련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됐을까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자국이나 열방을 향해 복음 전도자로 설 것을 선포했다.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L국에서의 하나님의 행하심이 추억으로 남지 않도록, 나의 서툰고 힘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일으키시도록 순종의 자리로 나간다. [GNPNEWS]

곽요순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독교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신앙과 정신의학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9)

인간은 신체와 정신 그리고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에서도 육과 혼과 영을 말씀하신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체보다는 정신을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보고, 정신보다는 영을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더 저차원의 신체가 심하게 병들고 아프면 정신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대로 정신력이 강하면 많은 육체적인 문제를 이기기도 한다. 또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우면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불안정할 때, 예를 들면 환청이 들리거나 망상을 보이는 정신증 증상이 있거나 치매와 같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물론 반대로 영이 강력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라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겨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영이 아주 강하면 육체와 정신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으니 신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고 신체, 정신, 영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 질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물론 복음이면 충분하다. 바울과 같이 신체 질환이 있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체 질환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낫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신 질환 또한 낫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주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교회 안에서 지체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으로 어려워할 때 쉽게 ‘의지로 극복하라.’ ‘신앙으로 극복하라.’ ‘약을 먹지 말아라.’ ‘병원을 왜 가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신앙과 정신의학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약도 의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이다. 신체적인 통증이 심해서 교회를 못 간다면 진통제를 먹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 되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부분이 원인이 되는 정신 질환에 대해서는 정신의학적인 치료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계속> [GNPNEWS]



평양 파견 건설돌격대... 보급 차질로 도둑질

한반도의 복음통일과 부흥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읽고 이 땅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다. <편집자>

평양봉쇄가 해제되면서 평양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 건설현장에 전국에서 청년돌격대가 집결했지만, 보급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돌격대원들이 시내에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전했다. 평양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건설은 작년 2월 착공되어 외부공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자재·자금난으로 내부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2023년 김

정은 총비서는 또다시 평양화성지구 2단계로 1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하도록 제시했다. 소식통은 “전국에서 수만 명의 청년돌격대가 평양으로 향하고 있지만, 당국이 쌀감을 공급하지 않고 있어 돌격대원들이 평양시민들의 살림집 창고를 털어 김치, 연탄을 훔쳐다 숙소연료와 부식물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당국이 조직한 청년돌격대들이 평양화성지구에 대거 몰려들면서 구멍탄 도둑과 김치도둑이 늘어나게 되자 대성구역 사람들은 창고의 자물쇠를 큰 것으로 교체하고 도둑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해 보지만 역부족이다.”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양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건설은 평양시민들의

북한 국경 지역에서 불법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돈벌이하는 주민들이 당국의 감시·단속 강화에 탈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혜산시의 불법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은 기회만 되면 국경을 넘겠다고 소곤거리고 있다.”며 “국경봉쇄 장기화로 돈벌이도 어려운데다 손전

화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새해 들어 불순분자 색출을 명목으로 당국의 감시와 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송금브로커, 전화 브로커 등 불법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돈벌이하는 주민들이 위축되고 숨 막히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북한에서 계속 살면 죽을 때까지 가슴을 졸

건설돌격대에 대한 후방사업을 방치하고 있어 돌격대원들이 평양의 민가를 털어

내도록 도둑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GNPNEWS]

불법 손전화 사용자들, 감시·단속 강화에 ‘탈북’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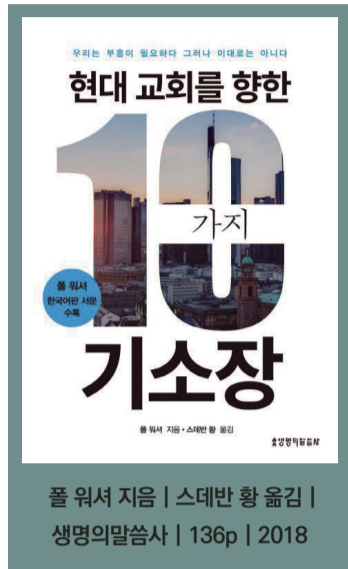
이며 살아야 한다.”면서 “국경만 열리면 무조건 중국이나 한국에 가겠다.”며 탈북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혜산은 밀수로 먹고사는 지역인데 3년 넘게 밀수를 못해 대부분 중국 손전화를 사용해 돈 이관하는 일로 돈을 번다.”면서 “그러나 걸리면 간첩으로 몰려 잡혀가거나 관리소로 보내지니 북한에서 더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시적으로 보위부에 체포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서 “보위부를 비롯한 법기관들의 단속과 감시가 날로 강화되고 있어 자녀들만이라도 좋은 세상에 가서 살게 하고 싶다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GN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폴 워서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

세상에 물든 현대 교회여, 예수교회로 돌아가라!



었다. 그때 그가 전하고자 했던 현대 교회를 향한 기소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교회의 세속화'라 할 수 있겠다.

현대 교회를 향한 기소장 '교회의 세속화'

현대 교회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만 있다면, 급성장하는 이슬람이나 여타의 사상들보다 더욱 교회에게 위협한 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폴 워서는 이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현대 교회를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가도록 일깨운다.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을 통해 지금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회복된 교회로 일어서야 할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책에서 그는 성경보다는 세상 철학과 유행을 따라 운영되는 교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모습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를 피상적으로 다루는 설교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기독교 입문자를 위한 10분 과정처럼 다루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모습들, 참된 믿음

과 회개 없이 따라하게 하는 알팍한 의식의 영접 기도들,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무지하여 건물을 교회로 착각하면서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등 현대 교회가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비성경적인 행태들을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었지만, 익숙함과 문화에 젖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벗어난 그곳으로 어서 돌아가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익숙함과 문화에 젖어 떠난 그곳으로 어서 돌아가자!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교회의 구별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말하며, 구별되어 살겠노라고 소리 내어 외치는 그의 결단의 고백이 동일하게 내 영혼의 고백이 되고 이 땅의 거룩히 구별된 예수교회의 고백일 것이다. 그리고 주의 군사 되어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마침내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너무나 근심하게

만든 나머지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시게 하는 데는 텔레비전 시청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물이 99퍼센트가 맑다고 해도 오물이 1퍼센트가 들어갔다면, 저는 그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이 땅에서 잘 사는 일에 그토록 신경 쓰십니까? 영생이 있는데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영광의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반복하여 읽으며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대인관계에 있어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나 날 때 훈련하십시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는 3절에서 '세상 나라들은 멸망 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 하리라!'로 선포한다. '말세지말(末世之末)'이라는 말처럼, 인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지나고 있는 지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도록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하고 계신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한 교회 즉, 회복된 예수교회를 왕성하

“ 구별되어 살겠노라고 외치는 결단의 고백이 동일한 내 영혼의 고백이요, 이 땅의 거룩히 구별된 예수교회의 고백이 된다 ”

게 세워가고 계신다.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 있을까! [GNPNEWS]

양동원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1. 11 ~ 2. 7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정숙 권혜령 김경선 김광희 김명순 김민경 김선희 김수미 김숙자 김신애 김애심 김영순 김원숙 김정희 김형숙 김혜신 민선홍 박경희 박성규 박신희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유영권 이보희 이상연 이영선 이영옥 이은주 이장원 이종훈 이주선 이진희 임보람 장근혜 정금자 정영배 정요한 정지순 정호진 조명숙 조형광 진미자 최근희 최인주 최정욱 하은숙 한홍자 홍고집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거자씨선교회 꿈꾸는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웹시흥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오에그교회 주안교회 주안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양터교회 풀뿌리산곡교회 함안순복음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p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엄마의 나물

심상한 채소만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말린 채소에 영양소가 더 많다는 걸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엄마의 나물이 그리웠어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셨던 무나물, 취나물, 고사리, 아주까리, 고구마순, 우거지, 시래기... 그땐 나물이 왜 그리 싫었는지, 재래시장에서 무청이나 배춧잎을 얻어오는 엄마를 보며 저는 궁색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학교 친구들이 자랑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 때, 저는 시큼한 김치와 칙칙한 시래기 반찬을 숨기고 싶었어요. 친구들의 기름진 진미채와 소시지 앞에서 제 반찬은 인기가 없었거든요. 점심 도시락은 빈부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곤 했죠.

그땐 몰랐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진짜 좋은 반찬이 엄마의 나물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래기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칼

슘, 식이섬유가 많고, 취나물은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있고, 호박고

세웠어요. 집에서 직접 삶아왔다며 덤으로 더 얹어주겠다고 하시면서

기분이예요. 나물을 볶고 나서 엄마의 사랑을



▲ 엄마를 생각하며 만든 나물 반찬들. 출처: 지소영 제공

지는 골다공증에 좋고, 도라지는 기관지를 건강하게 하고, 고구마순에도 비타민이 풍부하더라고요.

어제 재래시장에 나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널모레가 정월 대보름이니 나물 좀 사가라며 저를 불러

요. 인심 좋은 할머니 덕분에 처음으로 정월 대보름 음식을 준비해봤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나물을 종류별로 볶아 이웃에 좀 나누고, 반찬통에 가지런히 담아놓으

니 마음이 뿌듯하네요. 부자가 된

이제야 헤아려봅니다. 엄마의 마음을 그때 알았다더라면,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시는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GNPNEWS]

지소영

